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전남, 우주강국 도약 기대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광주·전남 어떤 사업 반영 됐나

미래 모빌리티·광주형 일자리 시즌 2·광양항 허브항 육성 등 포함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전남지역 국립 의과대 신설 등 제외 아쉬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살펴본 광주시와 전남도 안팎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정과제에 '광주·전남지역 정책'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많지 않지만, 광주·전남에서 추진중인 정책과 국정과제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지역 현안이 반영됐다는 게 시·도의 반응이다.

◇AI·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산업 대거 반영=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광주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육성 계획들이 포함됐다. 다만 국가 주도의 (광주, 대구, 수원 등) 군공항 이전 계획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광주시는 대신 앞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광주 지역균형 발전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지원 사업을 명시한 점을 내세워 새 정부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광주와 밀접한 핵심 과제는 77번째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다. 최고 수준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연구개발(R&D), AI 반도체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대학·중소기업 등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목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현장을 찾아 "광주가 AI 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또 국정 과제 중 28번째로 제시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과제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수위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광주시가 새 정부에 제안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 2'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 캐스퍼 위탁 생산으로 '대박'을 터트린 GGM에 이은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로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2월 선언한 바 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AI, 모빌리티는 광주시에서 당선인, 인수위에 요구한 지역 정책 공약 가운데서도 핵심 분야"라며 "유망 미래산업이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중복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광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분야인 만큼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광양항 허브항·우주사업 등 기대=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전남이 직접 언급된 내용은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 과제로,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한다는 게 유일하다.

110개 국정과제 대부분이 포괄적인 정책명인데다, 세부 정책을 담은 520개 실천과제가 이번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양항'이 직접 언급된 만큼, 광양항의 허브항만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남도 안팎에서 나온다.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도 고흥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남지역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키로 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다만, 신설할 항공우주청 대상지를 경남 사천으로 못박아 지역사회의 아쉬움도 나온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과제도 주요 내용이 전남과 연관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고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전남지역 SOC 확충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같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사업도 '무안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전남 현안과 맞닿아 있는 정책으로 분류했다. 또 국정과제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에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사업이 반영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면역중심 특화 거점으로 추진하려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푸드바이오밸리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있었던 신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사뭇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인수위는 이번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에 명문화하는 등 원전 중심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 국립의과대학 설립도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달리,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이전 등도 국정과제에 언급이 없어 전남도는 긴장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 대통령 "새로운 시대 연 정부로 기억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일주일 남겨둔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장관급 위원장 등 30여명을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하면서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내내 위기였다. 우리만의 위기이기도 했고 전 세계적 위기이기도 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부처 소관 따지지 않고 원팀으로 대응해 위기를 잘 넘었고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되었고, 선도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찾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량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으며 이런 경험은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와 도전과제를 헤쳐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 주고, 그 첫 차에 동승해 줘서 고맙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것이 두고두고 보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정호영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갖가지 '부적격' 지적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것을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물음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후보자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도덕·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언제 자진사퇴할 계획인가"라고 압박했다.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3건이나 되는 의혹들을 세세히 밝혔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40년지기'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당선인이) 대구에 발령을 받고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봤다"며 "40년 지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중북핵수석 3시간반 협의…"정세안정 협력"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

한국과 중국이 3일 서울에서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오전 2시간 협의 뒤 1시간 30분가량 오찬을 함께해 총 3시간30분 정도 솔직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류 대표는 오전 협의 뒤 취재진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통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변화'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류 대표는"한중간에 공통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이루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